

□ 새해를 여는 시

선한 힘들에 관하여

- 본 회퍼(독일, 1906~1945)

1. 선한 힘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
2. 지나간 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른다. 아,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구원을 주소서.
3.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찬 쓰디쓴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런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나이다.
4.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신 한번 세상에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5.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준 양초들이 오늘 따뜻하고 밝게 타도록 하소서. 가능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밤에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6. 적막이 우리를 깊이 둘러쌀 때, 저 세상을 가득 채운 소리를 듣자.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로 퍼져나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찬미하는 소리를.
7. 선한 힘들에 의해서 신실하고 조용히 감싸인 채 우리는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은 저녁과 아침 그리고 새 날에도 분명히 우리 곁에 계신다.

□ 알리는 말씀

1.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 농촌 사랑 · 노동 사랑

삼애교회

제15권 54호
2020. 12. 31

숨과 심이 있는 숲속의 교회



2020 · 2021년

송구영신예배

담임목사 : 김동환

부목사 : 이대철 교육전도사 : 최정화
지 위 : 오상용 반 주 : 민소영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160-30 연세대학교 삼애캠퍼스
TEL 031-975-1885 FAX 031-975-1884
love3@yonsei.ac.kr http://samae.yonsei.ac.kr

송 구 영 신 예 배

밤 11시 30분

*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 이대철 목사

전 주 반 주 자
예배예의부름 인 도 자
*찬 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301장) 다 같 이
*교 독 기 도 다 같 이

인도자: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그 빛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의 기억들과 마주
하게 해 주십시오.

인도자: 쓰라린 아픔의 순간에도 함께하신 주님, 큰 고통과 시
련의 시간에는 우리를 안고 가신 주님, 아프고 힘들어
도 꼭 가야 할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같이: 주님,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숨결 안에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암담한 현실, 답답한 전망 너머에 있는 새 날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해 주십시오.

인도자: 우리의 두려움과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주
님, 더 깊은 감사와 더 맑은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같이: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날마
다 매순간마다 생명과 평화의 호흡을 내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예 배 기 도 최희영 교우
성 경 봉 독 고린도전서 15:10 인 도 자
말 씬 증 언 .. “후회되는 한 해? 감사한 한 해?” 김동환 목사
공동의 기도 다 같 이

-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함께 기도
합시다. 2020년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
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 2021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고한 믿음을 갖
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가족과 친척, 친
구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위로를 주며,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고 기도합시다.
- 한국 사회와 남북 관계, 코로나19로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
서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의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여 참된
평화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 주기도문

새 해 인 사 다 같 이
찬 송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436장) 다 같 이
*축 도 김동환 목사
*후 주 반 주 자